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508
----------	------

동의연월일 : 2017. 6. 22.

동 의 자 : 정세균 · 우원식 · 정우택
김동철 · 주호영 의원
(5인)

찬 성 자 : 26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의 협력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남북관계는 최근 경색된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완전 단절됐으며, 지난 20세기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2017년 4월말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수는 60,995명으로, 80세 이상은 전체 생존자 수의 62.2%에 달하며, 특히 생존자 중 90세 이상은 19.2%에 이르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인도적 관점에서 올해 8·15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나아가 정례적인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
계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따라서 남북 당국에게 통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들
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속한 8·15 이산가
족 상봉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
기 위함임.